

RN-BSN과정 학생들을 위한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전략

김선아¹ · 박정화² · 김현례² · 김민정³ · 한나래³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¹, 박사과정², 석사과정³

The Development of a Communication Course for RN-BSN Students

Kim, Sunah¹ · Park, Jeong Hwa² · Kim, Hyun Lye² · Kim, Minjeong³ · Han, Na Rae³

¹Professor, ²Doctoral Student, ³Maste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Purpose: The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and examine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course for RN-BSN student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March 2007 to June 2007. The participants were 73 RN-BSN students but only 63 appropriate datum were analyzed. An 8 session communication program with lectures, music therapy, and group activity was performed.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to verify effects were a 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 and Relationship Change Scale.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t-test. Also, content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course evaluation from the students. **Results:** The scores of communication($p < .05$)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p < .01$)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research group. In addition, the advantages for a developed communication course perceived by students were 'application to real life', 'various and new educational methods', 'sharing and interaction through group activity', and 'relaxation and rest through music'. However, disadvantages identified were 'question about usefulness of music therapy' and 'a feeling of a lack of lecture time'. **Conclusion:** We recommend this type of course development utilizing various activity therapies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Key Words: Communication, Interpersonal relations, Students

서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실무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간호사와 환자 사이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없이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간호중재를 성공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간호사는 다양

한 의료 인력들과 복잡한 의료 서비스를 조정해야 하는 역할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Im, 2007; Lee et al., 2002; Park, 2000). 그러므로 국내외 간호대학에서는 간호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과정에 의사소통이나 인간관계 교과목을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의사소통 교과목은 이론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비

주요어: 의사소통, 대인관계, 학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Hyun Ly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10-6857-5207, Fax: 82-2-392-5440, E-mail: dalim1977@hanmail.net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내 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Yonsei University Research Fund.

▶ 접수일(2008년 9월 8일) / 수정일(1차: 2008년 10월 15일, 2차: 2008년 12월 1일) / 게재확정일(2008년 12월 8일)

판적 사고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체험학습과 실습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 개개인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경청, 자기노출과 자기표현, 공감, 나-전달법, 피드백 주고받기 등이라고 하였다(Devito, 1978; Pfeiffer & Jones, 1974; Stuart, Broadrick, & Guman, 1980; Woodman, Don, John, & Slocum, 1989). 또한 O'connor, Albert와 Thomas(1999)는 간호사들이 정신사회 영역의 간호중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집단 내에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시범을 보이면서 교수와 동료들 간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 기술을 분석해보고, VTR 촬영을 하여 이를 반복적으로 시청하면서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과 교수사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의사소통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통합 능력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의실에서의 경험을 전문직 간호의 좀 더 폭넓은 세계로 일반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Arnold & Boggs, 1999).

이와 같이 의사소통에 대한 개념과 이론 위주의 지식 전달에 초점을 둔 강의식 교육방법으로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없음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 개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의사소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배우고, 이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과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Kim, Park, & Lee, 2004). 그러나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형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교과목에서 학생 개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소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수와 동료들의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력지원과 시간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간호대학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 적용 가능한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이미 Kim 등(2004)이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의사소통론 교과목 운영 개발과 효과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강의시간과는 별도로 간호대학생들을 10여명씩 8개조로 나누어 6회의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의사소통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의사소통 교과목을 수강한 간호대학생들은 대인 간 의사소통 면에서 표현의 정확성, 자아개념, 감정처리에서 향상되었고, 우울도 감소되는 등 의사소통 능력을 증대시키는데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방법은 강의시간 이외에 별도의 집단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해야하므로, 이를 위해 훈련된 인력과 시간,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업 운영전략은 교수와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므로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매개체로서 음악이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갈등 감정이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을 안전하면서도 수용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즉, 음악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극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자신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게 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도록 하여,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증진시킨다(Woo, 2006). 그러므로 음악은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켜줄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도록 도와주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므로 치료적인 효과와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Ulfarsdottir & Erwin, 1999). 이미 음악요법들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불안, 우울 등 정서적 건강문제를 감소시키며 자기 확신 및 자기조절력 향상, 친구들과의 관계 증진 등에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결과에서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2006; Lee, 2000; Lee, 2003). 또한 만성정신질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음악요법을 적용한 연구에 의하면, 집단의 응집력을 촉진시키고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Waldon, 2001). 중학생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적용한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Kim & Kim, 2004). 이와 같이 음악요법은 참여자들에게 거부감이나 위협감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양한 세팅에서,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는 많은 대상자들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간호기술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음악요법의 활동내용들을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에 접목시킴으로써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가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집단활동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여명 이내의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활동을 통해 이미 익숙해진 자신의 의사소통 특성을 확인하고, 의사소통 규범을 자발적으로 익힐 수 있으며, 타인의 장점을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Kim et al., 2004). 집단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들을 직접 적용하면서 익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직 간호사로서 사회화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Arnold & Boggs, 1999; McCabe, 2004; O'conner et al., 1999;). 그러므로 집단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경험을 갖게 되어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배우고 계속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Kim 등 (2004)의 연구에서는, 6회의 집단활동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실제생활에서 경험한 의사소통에 관한 이슈들을 집단활동의 주제로 다루도록 하여 자신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변화를 경험해보도록 하였다. 이 경험은 의사소통기술과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한 교과목 운영전략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운영 전략은 대형 강의실에서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할 뿐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학부 학생들을 위한 의사소통 교과운영 전략도 추후에 개발하게 될 것이다.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의, 음악요법, 소집단활동을 활용한 새로운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전략을 개발하고 RN-BSN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후 그 효과를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기술을 측

정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개념적 기틀

간호실무에서 대상자와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료 인력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내외 간호교육 과정에서는 의사소통이나 인간관계 교과목을 포함시키고 있고, 이론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방식보다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의사소통 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도의 일환으로서 강의와 함께 음악요법과 소집단활동을 활용한 의사소통 교과목을 개발하고 간호대학생들의 실제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최근 개발된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들과 관련 문헌의 고찰을 통해 구성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연구방법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RN-BSN 학생들의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교과운영전략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설계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한 검증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주관적인 강의평가내용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과목평가에 관한 범주는 코드화된 의견의 빈도수로 추출하였으므로 학생 전체의 경험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서울지역의 일 간호대학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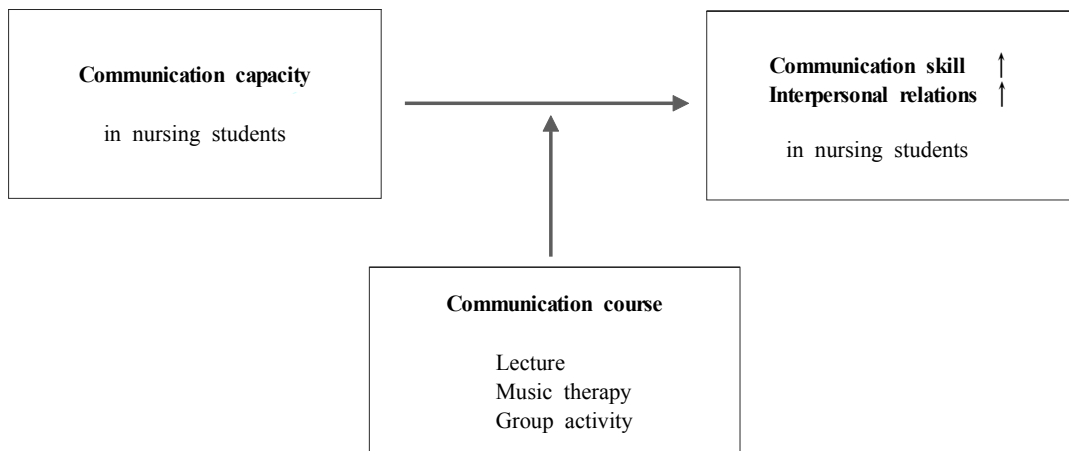


Fig. 1. Conceptual framework for this study.

학년도 1학기 의사소통론(3학점) 교과목을 수강한 RN-BSN 과정 3학년 72명이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최종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63명이었다.

연구진행 및 자료수집

• 교과목 운영전략 개발과정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은 Haynes-Clements(1980)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Lee(1991)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프로그램과 Kang(1996)이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소통 증진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Kim 등(2004)의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교과목 개발연구 등을 참고하여 교과목 운영전략을 개발하였다. 본 교과운영 전략의 목표는 의사소통 기술 향상과 인간관계 증진으로 결정하였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 강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과 연계하여 집단활동에서 학습자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분석하고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운영되었다.

집단활동은 연구자 3인과 음악치료사 1인, 연구보조자 1명이 문헌고찰과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8회의 활동 프로그램을 2006년 12월에서 2007년도 1월까지 개발하였다 (Table 1). 집단활동에서 다루어야 할 각 회기 당 목표와 내용은 이미 대학 차원의 교과과정 위원회에서 설정한 의사소통론 교과목의 목표와 내용과 연계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8회 프로그램은 RN-BSN 과정 간호대학생들이 자가 학습 시간을 제외한 필수 수업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16시간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각 집단의 구성원인이 너무 많으면 개인 당 참여하는 기회가 적어질 수 있고, 너무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눌 경우 강의실에서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72명의 학생을 10개조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7-8명의 학생들로 배정하기로 하였다.

• 촉진적 의사소통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설문조사를 2007년 3월 초 수업 첫날에 실시하였고, 사후조사는 2007년 5월 마지막 수업을 마친 후 실시하였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 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대상자에게 주고 스스로 작성하게 하였으며, 설문지의 회수율 증가와 자료수집방법 및 시기와 관련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바로 회수하였는데, 72부의 설문지가 최종 회수 되었다.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 대상은 회수된 총 72부의 질문지 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63부가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를 SAS 9.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표준편차, 빈도수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처치 전후 결과변인의 변화는 사전-사후 비교를 위한 paired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질문지,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결과변인으로 대인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에는 경제상태, 거주형태, 동거가족 수, 의사소통 관련 프로그램 훈련경험 유무 등이 포함되며 질문지는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대학 차원에서 실시하는 과목평가 항목들을 포함하였다. 이 과목평가는 학기 말 학생들이 대학 홈페이지에서 과목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 의사소통 능력 척도

의사소통 능력 척도는 Navran(1967)이 부부 의사소통 검사를 위해 개발한 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PCI)를 Ju(2005)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Ju(2005)가 대학생 대상으로 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본 척도는 2개의 역문항(8, 16번)을 포함한 총 25문항의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자기보고형식으로 되어 있다. 25-125점의 범위로 분포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대인관계 척도

본 척도는 Schlein, Guernsey와 Stover(1971)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Chun(1995)이 사용한 도구이다. 본 도구는 총 25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하위영역은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건강하다고 평가된다. Chun(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로 나타났다.

Table 1. Overview of the Developed Communication Course

Session	Categories	Details
1	Goal Contents Course admini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sess communication skill · Learning the impact of communication in human relationship · Sharing motivation for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 [Lecture] Course introduction [Group activity] Self-introduction, recent conflict situation
2	Goal Contents Course admini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entify problem in communication · Describing conflict situation related to communication in daily life · Understanding self and others [Lecture] Understanding self in communication [Group activity] Music therapy: song writing for listening, self-expression
3	Goal Contents Course admini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velop an action plan · Dealing with feeling ·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verbal and non-verbal expression [Lecture] Basic attitude in communication [Group activity] Music therapy: mirroring for trust, empathy and so on
4	Goal Contents Course admini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ly new strategy in daily life (1) · Discussion new approach in conflict situation · Exercising changed strategy for group members [Lecture]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 [Group activity] Strength & weakness, establishing personal goal
5	Goal Contents Course admini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ly new strategy in daily life (2) · Trying problem solving methods [Lecture] Problem-solving in conflict situation [Group activity] Identifying one's emotion in music
6	Goal Contents Course admini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gnize change · Giving feedback among group members · Explaining change in daily life [Lecture]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 in various situation [Group activity] I-massage, recognizing change
7	Goal Contents Course admini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prove communication skill · Revaluation communication skill · Analyzing strength and weakness [Lecture]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 in various persons [Group activity] Reanalysis one's strength & weakness
8	Goal Contents Course admini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valuation, confirming change · Making long term plan [Lecture] Ineffective communication skill [Group activity] New goal-setting, planning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

연구결과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한 교과목 운영전략 개발

수업운영은 대형 강의실에서 100분씩 8회로 진행되었는데, 초기 20분간은 학생들이 자가 학습을 통해 학습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는 과목 담당교수가 주요 개념 부분을 요약하여 강의한 후, 60분 동안은 음악요법을 포함한 집단활동을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마무리 20분 동안에는 학습자 전체가 모여서 집단활동 내용을 이론적인 지식과 연계하여 정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대형 평면 강의실에 학생 전체가 강의를

든다가 조별활동시간에는 학생들이 책상과 의자를 조금씩 움직여서 조별로 모여 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집단활동을 마치면 학생들 전체가 다시 정면을 보고 강의 교수를 바라보도록 마무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학기 초에 학생들의 좌석을 지정하여 조별로 가까이 앉도록 하였다.

이론적인 교과내용들은 대학 차원에서 자가학습 자료로 모듈 개발이 이미 되어 있었으므로 이 모듈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매 회기에 연구자로 참여하는 교과목 담당교수1인과 연구보조자인 조교 1인이 매 수업시간을 진행하였다. 2회와 3회기의 음악요법이 집단활동에서 다루어졌는데, 학습자의 감정을 이완시켜 이들이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집단활동 시간에 실제 생활과 연계된 갈등상황을 실제로 다루도록 하여 의사소통에서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해 보도록 하였고, 동료들 간에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5개의 과제들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 설정하고 스스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회기 당 주요 강의 주제와 집단활동 내용에 대한 운영전략

<1회기> 수업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의사소통에서의 자기이해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강의시간에 다루어졌다. 집단활동에서는 집단 구성원들끼리 최근 의사소통에서 힘들었던 상황을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였다.

<2회기> 20분간 의사소통에서의 자기이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듣고, 집단활동에서는 음악치료사가 주도한 음악요법을 통해 집단별로 가사 따라 적기와 개사를 통해 경청과 표현하기를 경험하였다. 자기표현을 점차 증대시켜 자신의 문제점이나 갈등상황들을 표현하도록 유도하였다.

<3회기> 강의시간에는 의사소통에서의 기본 태도인, 신뢰감, 존중, 공감, 온정, 진실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한 후 집단활동에서는 음악치료사가 주도하여 인간조각상 만들기 경험을 하였다. 이 시간에는 두 명의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 조각상이 된 학생은 두 눈을 감은 채 조각가인 다른 학생이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며 신뢰감, 존중, 공감, 온정, 진실을 몸으로 느끼도록 하였다. 특히 이때 갈등상황에서 신뢰감, 존중, 공감, 온정, 진실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동료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도록 하였다. 이때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

기법들을 점검하였다.

<4회기>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의 활용에 대해 강의가 있던 후 집단활동에서는 갈등상황에서의 의사소통에서 적절한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료들과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 내용 중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5회기> 갈등상황에서의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강의 시간에 학습한 후 집단활동에서는 다양한 음악을 듣고 감정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해와 전략들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때 문제해결 중심으로의 전략들을 동료들과 점검하도록 하였다.

<6회기> 다양한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강의 후 집단활동 시간에는 나-전달법을 연습하고 의사소통에서 나타나고 있는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고 동료들과 서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7회기> 강의시간에는 다양한 대상자들과의 의사소통 기법에 대해서 다룬 후 집단활동 시간에는 의사소통기술이 향상된 것을 학습자 자신이 확인하면서 의사소통에서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재분석해 보도록 하였다.

<8회기>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강의 후 최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활동을 하였다.

효과검증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RN-BSN 3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6.2±3.6세였다. 지각된 사회경제적 수준은 빈곤에서 풍족한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을 때, 평균 56.6±15.2%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서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34명(54.8%)으로 가장 많았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12명(19.1%)이었으며 혼자 자취하는 경우 역시 12명(19.1%)이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평균 동거가족수는 2.8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과거 의사소통 프로그램 훈련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13명(21.0%)으로 나타났다.

• 의사소통 능력 정도의 변화

대상자의 사전-사후 결과변인의 변화와 차이검정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의사소통능력의 사전 점수는 72 - 104점의 범위로 평균 88.67±7.62점이었고, 사후 점수는 59 - 113점의 범위로 평균 91.14±9.91점으로 나타났다. 처치 전후 의사소통능력 평균 점수 차이는 2.47점으로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6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 ± SD
Age(yrs)		26.2 ± 3.6
Perceived social economic state(%)		56.6 ± 15.2
Residence	Home	34 (54.0)
	Dormitory	12 (19.1)
	Boarding oneself alone	12 (19.1)
	Boarding oneself with others	4 (6.4)
	Others	1 (1.6)
Family numbers living together(when living with family)		2.8 ± 1.0
Undergoing communication training in the past	Yes	13 (21.0)
	No	49 (79.0)

paired-t 검정 결과에서 유의수준 .05 이하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 대인관계 능력 정도의 변화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의 사전-사후변화와 차이검정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대인관계능력의 사전 점수는 63-113점의 범위로 평균 90.62 ± 9.91점이었고, 사후 점수는 73-121점의 범위로 평균 94.08 ± 11.10점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점수 차이는 3.46점으로 paired-t test 결과 유의수준 .01 이하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Table 3. Comparison of Communication Skill, Interpersonal Relations Scores Before and After Developed Communication Course (N=63)

Variables	Range	M ± SD	t	p
Communication skill				
Pretest	72 - 104	88.67 ± 7.62	2.21	.031
Posttest	59 - 113	91.14 ± 9.91		
Interpersonal relations				
Pretest	63 - 113	90.62 ± 9.91	2.69	.009
Posttest	73 - 121	94.08 ± 11.10		

• 학생들의 과목평가 결과

본 연구과정에서의 새로운 의사소통 교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의 4.05점으로 나타났다. 이 외

에 본 새로운 운영방식의 의사소통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과목평가내용을 코드화하여 비교, 분류, 추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도출한 범주에는 교수 및 강의방식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5개 코드 이하의 소수 의견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 교과목에서 좋았던 점>

- 실생활에의 적용 (총 66개 중 22개 코드)

학생들이 경험한 본 과정의 장점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실생활에의 적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에 대해 되돌아보는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수업에서 다룬 내용들을 일상생활과 다양한 임상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방식 (총 66개 중 13개 코드)

학생들이 두 번째로 많이 언급한 장점은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방식’이었다. 강의뿐만 아니라 음악요법 및 조별활동, 토의과정을 통해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보다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신선하고 지루하지 않았다는 반응이었다.

- 집단활동을 통한 공유와 나눔 (총 66개 중 12개 코드)

학생들이 생각하는 세 번째 장점은 ‘집단활동을 통한 공유와 나눔’으로, 매 회기마다 발표와 토의로 이루어진 조별활동에 관한 의견이었다. 즉, 다른 조원들과 함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공감하고 피드백하며 친목도 도모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 음악을 통한 이완과 휴식 (총 66개 중 10개 코드)

학생들은 음악을 통해 ‘이완과 휴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을 통해 편안하고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흥미도 느꼈다고 언급하였다.

<본 교과목의 문제점>

- 음악요법의 효용성에 관한 의문 (총 43개 중 16개 코드)

학생들이 경험한 본 과정의 단점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음악요법의 효용성에 관한 의문’이었다. 본 과정의 장점으로 이완의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음악요법을 통한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프로그램 내용과 자신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경험을 서로 연계하기 어려웠으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있었다.

- 강의시간에 대한 부족감 (총 43개 중 7개 코드)

학생들이 두 번째로 많이 언급한 단점은 ‘강의시간에

대한 부족감'이었다. 본 과정에서 다양한 학습활동을 경험한 반면, 상대적으로 강의시간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RN-BSN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활동을 적용한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전략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새 교과목 운영의 효과는 실험 전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의 변화에 관한 통계적 검정방법과 학생들의 과목평가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결과와 새 교과목 운영전략의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사전-사후 변인의 변화정도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다양한 활동요법을 활용한 의사소통 새 교과목은 간호대학생들의 대인 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일 실험군 내에 사전-사후 의사소통 능력 척도의 평균 점수는 2.47점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 등(2004)의 연구에서 집단요법 중심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 내에 의사소통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3.5점 증가하였고, Kang(1996)의 의사소통 프로그램 연구에서 실험군의 의사소통 점수가 약 3점 향상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강의 외 다양한 접근의 활용은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한편, 교과목 운영상의 경제성과 실용성을 고려해 볼 때 정규 강의시간을 활용한 본 연구에서의 교과목 운영이 현실적인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RN-BSN 간호대학생의 평균 의사소통 점수(91.14 ± 9.91)는 Kim 등(2004)의 학부 간호대학생의 점수(96.67 ± 7.73)보다 낮고, Kang (1996)의 일반 여성성인의 점수(90.09 ± 12.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하고 사회활동경험이 풍부할수록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능력은 자연적으로 습득되기보다는 학습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대인관계 능력 변화에 있어서도 본 연구에서는 단일 실험군 내에서 대인관계 척도 3.46점의 유의한 향상($p < .01$)을 보였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훈련의 효과를 평가한 Kim(2000)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것과 Kim 등(2004)의 연구에서 실험군 내에 처치 전후 유의한 향상을 보인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중재방법이 다양한 대상의 대인관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집단요법, 음악요법 등 다양한 활동요법을 활용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이나 교과목은 강의방식

에서 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습득 외에 실질적인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새로운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 전략의 주요 특징을 정리해보면,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음악을 사용한 점, 동료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실질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집단활동을 활용한 점, 집단활동의 토의주제로서 실생활에서 경험한 의사소통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학습활동과 실제의 연계성을 도모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운영전략의 반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학생들의 과목평가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본 교과목의 장점은 '실생활에의 적용',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방식', '집단활동을 통한 공유와 나눔', '음악을 통한 이완과 휴식'으로 나타났다. 즉, 실생활 또는 임상 관련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주제를 다룸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하였고, 학생들은 집단활동을 통해 존중, 공감, 온정, 경청 등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태도와 기법을 체험하였으며, 음악을 통한 이완효과를 경험하였다. 반면, 학생들이 느낀 교과목의 문제점은 '음악요법의 효용성에 관한 의문'과 '강의시간에 대한 부족감'이었다. 학생들은 전문 음악치료사가 주도한 음악요법활동이 학습내용과 연계가 부족하고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가사파라적기와 개사', '인간조각상'과 같은 음악요법이 자기이해와 표현, 경청기법과 의사소통의 기본태도인 신뢰감, 존중, 공감, 온정, 진실을 경험하게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강의시간에 대한 부족감'은 기존 강의방식에 대한 익숙함과 다양한 활동과 참여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비롯된 반응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새 교과목 운영방법의 주요 특징을 기존 문헌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 활용된 음악요법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에는(Waldon, 2001; Woo, 2006) 충분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음악을 통해 정서적으로 편안해지고 차분해짐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보다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준비상태를 만들어 주는 데에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경험으로 보았을 때, 구체적인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적인 음악요법의 전략과 방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고, 음악을 통한 이완 효과가 보다 많이 보고되었으므로 음악의 사용을 보다 많이 활용해 볼 수 있겠다. 그 외 특징으로서 집단활동과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 이슈를 다룬 점은 Kim 등(2004)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집단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기술을 체험하고 타인을 모방하며 실생활과의 연계와 자기성찰과 변화를 경험하는

효과가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단일군 실험설계로 인한 통계적 검증력 약화와 학생들의 과목평가에 관한 분석결과의 대표성이 약한 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임상경험이 있는 RN-BSN 학생들의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해 지식 전달의 강의식보다는 효율적이면서,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운영상의 경제성을 갖춘 새로운 교육방법을 시도한 데에 의의를 갖는다. 특히 학생 개인의 정신건강문제를 교수자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임상에서의 실제적인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부족한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간호교육을 발전시키고 추후 의사소통 교과목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Y대학교 RN-BSN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의와 활동요법을 함께 적용한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전략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강하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대인관계 능력 변인에 대해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고, 학생들의 구체적인 과목평가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정도의 변화 결과, 강의와 활동요법을 적용한 새 교과목을 수강하였던 학생들의 사전의 의사소통능력 점수는 평균 88.67 ± 7.62 점이었고, 사후 점수는 평균 91.14 ± 9.91 점으로 나타났고, 처치 전후 의사소통능력 평균 점수 차이는 2.47점으로 유의수준 .05 이하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정도의 변화 결과, 대인관계능력의 사전 점수는 평균 90.62 ± 9.91 점이었고, 사후 점수는 평균 94.08 ± 11.10 점으로 나타났고, 사전-사후 점수 차이는 3.46점으로 유의수준 .01 이하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대상자의 과목평가내용의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새로운 의사소통 교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의 4.05점으로 나타났고, 강의를 통한 해당분에 대한 관심도 증가는 4.15점이었다. 학생들의 강의평가내용에 대한 언급은 총 109개의 코드로 요약되었고, 이 중 본 교과목의 장점으로 도출된 범주는 ‘실생활에의 적용’,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방식’, ‘집단활동을 통한 공유와 나눔’, ‘음악을 통한 이완과 휴식’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이 지적한

본 교과목의 단점은 ‘음악요법의 효용성에 관한 의문’, ‘강의시간에 대한 부족감’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로 인한 효과검증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적절한 대조군을 선정하여 실험군-대조군 전후 실험설계를 사용한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 새로운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전략이 의사소통,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이끌어내었으나, 추후 연구에는 결과변인의 지속성에 대한 평가와 학생들의 긍정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의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을 위해 음악요법의 계획과 운영상의 보완과 그 외 다양한 활동요법의 활용방안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정신간호학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와 간호사들이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특히 임상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의 운영과 확산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rnold, E., & Boggs, K. U. (1999). *Interpersonal relationship-professional communication skills for nurses* (3rd ed.).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 Chun, S. K. (1995).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for rehabilitation of the schizophrenic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 Devito, J. A. (1978). *Communicology: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ommunicatio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Im, S. B. (2007). *Health communication education: Skill and practice of commun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Seoul.
- Ju, J. S. (2006).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Kang, K. J. (1996).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 Kim, M. Y. (2000). *Effects of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human relationship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Kim, S. A., Park, J. H., & Lee, H. H. (2004).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course fo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4(3), 413-420.
- Kim, S. A., & Kim, K. H. (2004).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program with music therapy for maladjustment problems in middle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 Nurs*, 13(4), 411-419.
- Kim, S., Kverno, K., Lee, E. M., Park, J. H., Lee, H. H., & Kim, H. L. (2006). Development of a music group psychotherapy intervention for the primary prevention of adjustment difficulties in Korean adolescent girls. *J Child Adolesc Psychiatr Nurs*, 19(3), 103-111.
- Lee, E. J. (1991).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program for enhanc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E. J. (2003). *The effect of a structured group therapy on self-esteem and anger in delinqu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J. H. (2000). *The effect of group music program on depression in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J. S., Park, S. M., Chun, S. S., Choi, J. S., Kim, M. O., Kim, R., et al. (2002). Communication experiences between psychiatric nurses and pati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1(4), 596-608.
- McCabe, C. (2004). Nurse-patient communication: An exploration of patients' experiences, *J Clin Nurs*, 134, 41-49.
- Navran, L. (1967).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in marriage. *Fam Process*, 6, 173-184.
- O'Connor, F. W., Albert, M., & Thomas, M. D. (1999). Incorporating standardized patients into a psychosocial nursing practitioner programs. *Arch Psychiatr Nurs*, 13(5), 240-247.
- Park, J. W. (2000). The experiences of psychiatric patients about nurses' nonverbal communication behavior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9(1), 35-43.
- Pfeiffer, J. W., & Jones, J. E. (1974). *Annual handbook for group facilitators*. San Diego, CA: Pfeiffer & Company.
- Schlein, S., Guerney, B., & Stover, L. (197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ennsylvania, USA.
- Stuart, R. B., Broadrick, C., & Guman, A. S. (1980). *Helping couples change: Approach to marital therapy*. New York: The Guilford.
- Ulfarsdottir, L. O., & Erwin, P. G. (1999). The influence of music on social cognitive skills. *Art Psychotherapy*, 26(2), 81-84.
- Waldon, E. G. (2001). The effects of group music therapy on mood states and cohesiveness in adult oncology patients. *J Music Ther*, 38(3), 212-38.
- Woodman, R. W., Don, H., John, W., & Slocum, Jr. (1989). *Organization behavior*. Singapore: Haper and Row Publishers.
- Woo, A. (2006). *The effects of the music therapy activities on the communication improvement and marriage satisfaction of couple focused on the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